

#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役割과 機能에 대한 評價 세미나

韓 宗 哲

(延世大 心理學科)

## 1. 세미나의 意義

大學運營의 自主性을 높이고 公共性을 양양하며, 대학의 相互協調를 통하여 大學教育의 건전한 발전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지난 1982년에 창립된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그간 13차에 걸쳐서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차까지의 學術 세미나의 주제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大學教育의 內容·制度 및 政策에 관한 內容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번 13차 學術 세미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그간에 있었던 學術 세미나와는 그 性格과 意義가 다르다고 하겠다.

첫째로 이번 學術 세미나는 지난 5년간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그 본래의 設立目的에 비추어 그간에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그 役割과 機能을 수행하여 왔는가에 대한 협의회 自體의 評價의 性格의 內容이 주제였다.

둘째로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한정된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韓國大學教育協議會를 구성하고 있는 110개 전체 會員大學(校)의 總·學長 및 그 대학의 대표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大學間 協議體로서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보다 自律的 機關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方向 모색 과정에 우리 대학인들의 강한 改革的 意志와 熱意를 응집시킬 수 있었던 學

術의 廣場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세미나의 의의는 협의회의 회장인 權寧贊 總長이 開會辭에서 밝혔듯이 創立 第5次 年度를 맞는 大學教育協議會가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反省해 보고 앞으로의 方向을 定立해 보는 데 큰 뜻이 있으며, 그리하여 이번 기회가 '反省과 發展'이라는 두 가지의 價値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契機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 2. 세미나의 進行과 內容

1986년 12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본 세미나는 첫날에 크게 세 가지 內容領域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 영역은 基調講演과 主題發表 그리고 分科別 主題發表 및 討議였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분과별 주제 발표 및 토의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5個 分科別 發表와 綜合討議가 있었다.

基調講演의 내용은 앞으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役割과 機能에 대한 것이었고, 主題發表의 내용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대한 自體評價였다. 그리고 分科別 主題發表는 그간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力點을 두어 추진하여 왔던 大學間의 協議調整(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운영의 상호 협의 및 조정), 大學評價事業(학문 영역별 및 기관 평



▲ 李元高 總長の 기조강연

가), 敎育政策研究(학사, 재정, 시설 연구), 情報센터 運營(자료실, 교수 초빙, 敎育 통계) 그리고 研修機能(신입 대학교수 및 행정직원 연수) 등 5개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조강연, 주제 발표 그리고 분과별 주제 발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基調講演

본 세미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基調講演은 李元高 總長(韓南大)의 ‘大學敎育發展을 위한 協議體의 役割과 機能’이라는 演題였다. 李總長은 대학 본래의 普遍性和 世界性を 고려할 때 대학간의 相互協力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韓國大學敎育協議會(KCUE)의 역할과 기능을 오늘의 現況(what is), 當爲的 未來(what ought to be) 그리고 可能的 選擇(what is possible)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KCUE의 現況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學閥 소요 문제를 대학의 주도하에서 해결하려는 기대, 대학 행정 체제를 開放體制로 전환하려는 의도 그리고 대학교육의 先進化를 협의체를 통하여 이룩하려는 政策轉換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탄생한 오늘의 KCUE를 그 功

過를 구분하여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分科別로 발표할 5개 영역의 program을 평가하면, 지난 5년간 매우 괄목할 만한 成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李總長은 오늘날의 KCUE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行政者들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解決하려는 의지와 自信心을 가졌다는 精神的 領域에서 오는 無形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KCUE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山積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로서 ① 官主導의 協議體機關이라는 一般通念을 불식시키는 일, ② 회원 대학(교)들의 無關心의 문제, ③ KCUE의 組織自體가 각 회원교의 意見을 수렴하기에 未洽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KCUE의 財務構造가 政府의 補助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KCUE의 當爲的 來日에서 李總長은 우리는 先進國들의 大學間 協力體制에서 우선 적절한 모델을 選定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未來設計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면, 그 모델로서 美國州立大學校協會(The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 AASCU)의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KCUE가 當위적 未來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능한 몇 가지 具體的인 提案을 하고 있는데 첫째, 회원교들의 利益을 대변할 對政府活動을 보다 積極化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정부의 敎育投資는 물론 研究費 지급의 引上, 각 기업체의 產學協同 참여 유도과 研究費 지원의 확대 그리고 각 財團의 연구비 兪선과 兪치 등에 대한 情報의 수집 및 分配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셋째, KCUE내에 몇 개의 分科委員會를 두어 加급적 전회원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게 함으로써 專門的인 意見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며, 넷째, 현재 각 지방에 있는 自生的 協議組織들을 인정하고, 未組織地域에는 비슷하게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善導함으로써 그 지방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協力이 活性化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다섯째, 현재 延大, 西江大 및 梨大 등이 실시하고 있는 大學院間의 協力體制를 연구하여, 기

타의 대학들도 教授, 圖書, 실험실 등의 共同活用을 통해 經費의 절감, 교육적 效果의 提高 등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大學 聯合體들과 협의하여 KCUE의 회원교들이 國際交流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학별로 國際 프로그램을 活性化시킬 수 있도록 助長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너무나 성급하게 방향을 전환하기보다는 漸進的인 變化와 成長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李總장은 강조하였다.

## 2) 主題發表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體制分析을 위한 自體 評價報告”라는 주제를 발표한 具丙林 博士(協議會·專門委員)는 KCUE의 發展過程과 現況, 협의회의 性格과 運營方向의 탐색, 각종 事業의 내용과 實績報告 그리고 종합과 결론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먼저 협의회의 발전 과정과 현황에서는 본 협의회의 設立背景과 沿革 그리고 협의회의 組織과 現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984년 4월에 본 協議會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이 되어 명실공히 정부와 대학간의 中間調整機構가 되어 대학 상호간의 協同을 위한 센터로서의 法的 地位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협의회의 성격과 운영 방향의 탐색에서 具博士는 먼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40년 동안의 大學教育政策과 行政體制의 變化를 自由放任期(1945~60), 統制期(1961~70), 官主導的 改革의 試圖期(1971~79) 그리고 1980년 이후를 協同的 自律改革期 등 크게 4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이에 본 협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機能을 크게 8가지로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의 내용과 업적 보고에서 지난 5년 가까이 진행시켰던 KCUE의 사업인 大學評價事業, 「大學教育」誌 發刊·配布事業, 大學의 敎·職員 研修事業, 大學教育에 관한 국제 및 국내 세미나 개최, 寄贈圖書 배포 사업, ‘大學敎授 招聘情報室’ 운영,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國際交流 증진, 大學間 協議體 支援事業, 大學教育 調查研究事業 그리고 기타 文敎部 長官의

委託 및 大學協同에 관한 事業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 실적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에 협의회가 가장 比重을 두어야 할 會員大學의 要求나 期待水準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의회 자체의 脆弱性 때문이지만, 또한 오랫동안 政府主導的 大學政策에 익숙해져 온 環境과 大學風土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협의회의 발전이나 바람직한 운영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 要因으로 ① 협의회의 役割과 機能에 대한 자체의 留意缺如, ② 대학간 협의체를 受容하는 사회 環境과 周邊風土의 未成熟, ③ 협의회 자체나 회원 대학의 經驗 또는 訓練 不足, ④ 정부나 회원 대학에서의 支援體制 脆弱, ⑤ 대학에 대한 정부의 規制施策의 지속으로 인한 活動領域의 制約 등을 들었다.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2000年代를 전후하여 크게 성숙되어야 할 韓國 大學의 미래를 眺望하면서 회원 대학 발전을 위해 奉仕하며, 개별 대학들이 그 대학단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共通의 課題나 問題들을 찾아 相互協力으로 해결하고, 명실공히 정부나 대학간의 架橋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본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 3) 分科別 主題發表

### (1) 大學間의 協議調整 機能

제1분과 주제를 발표한 郭泳宇 교수(全北大)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協議調整機能을 분석하였다. 먼저 그간에 협의회가 수행하였던 대학간 協議調整에 관한 사업 활동을 첫째, 總會, 理事會, 자문위원회 등의 각종 集會를 통한 大學 事業 및 시설 운영에 대한 相互協議와 調整을 중심으로 한 제 활동, 둘째, 정부에 대한 政策建議의 실적, 셋째, 大學間 協同, 넷째, 大學間 協議體 支援事業으로 나누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다섯 가지 사업 활동에 대한 概括的·全體的 總括評價에서는 대부분 肯定的인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나 몇 가지 점에서는 앞으로 補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郭教授는 KCUE의 지속적인 發展을 위해

서 다음과 같이提言하였다.

첫째, 협의회 運營基金의 安全性 있는 確保를 위한 制度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협의회의 운영 기구내에 協議調整 專擔部署를 설치하여 研究, 세미나 등의 결과를 實行에 옮기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회에 대한 회원 대학의 보다 向上된 協調가 필요하다. 넷째, 회원 대학의 多樣性으로 인한 대학간의 利害相反性, 갈등성은 고려하여 협의회가 協議調整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의회에 의하여 建議된 對政府 建議는 건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實際政策으로 受容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協議體의 운영이 더욱 活性化되도록 협의회에 의한 支援의 폭을 넓히고 질을 改善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 (2) 大學評價 機能에 관한 照鑑

제 2 분과 주제를 발표한 李星鎬 교수(延世大)는 그간의 大學評價事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으로 照鑑的 評價의 두 가지 基本要素인 평가의 環境과 體制에서 이를 평가하였다.

먼저 대학 평가 사업이 기여하였던 점을 평가의 環境的 側面에서 보면 ① 官爲主의 評價 氛圍氣를 大學人들 스스로에 의한 自律的인 평가 분위기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② 대학 평가 사업은 大學評價의 環境을 相助의 協議 環境으로 造成해 나갔다는 점에서도 일단 성공하였고, ③ 대학 평가가 一方的인 評價行爲로 끝나지 않고, 각 대학으로 하여금 自身들의 問題를 스스로 연구하도록 促成하는 研究 氛圍氣를 이식하였다는 점 등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는 첫째로는 그동안의 대학 평가가 모든 대학에 대해서 劃一的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점과 둘째로 회원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 평가에 보다 활기 있게 參與하고 싶은 欲求를 느끼게 할 만한 분위기 또는 誘因體制를 만들지 못했던 점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평가의 體制面에서 볼 때, 大學評價事業이 기여한 점으로 ① 大學評價 類型을 一般的 評價(general or institutional evaluation)와

專門分野別 評價(programmatic or specialized evaluation)로 二元化시켰다는 점과 ② 일련의 評價節次를 합리적으로 制度化시켰다는 점 등을 들었고, 반면에 問題點으로는 ① 現地訪問評價 教授들의 專門性 결여와 評價行爲의 문제, ② 評價基準이나 自體分析研究報告書 樣式의 劃一性 문제, ③ 협의회 研究人力의 專門性 결여와 연구 인력의 不足 ④ 대학 평가를 위한 事前的 충분한 準備 不足 등을 지적하였다.

### (3) 大學教育協議會의 政策研究 機能

제 3 분과 주제를 발표한 李宗宰 교수(서울大)는 政策研究 機能에 대한 평가에서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① 대학교육협의회의 政策研究를 類型化하고, ② 이에 따라 5년간의 實績을 개관하고, ③ 협의회의 政策研究를 몇 가지 관점에 따라 概括的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대학교육협의회의 政策研究의 기능과 사업의 근거에서 李교수는 '學生指導'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책 연구 기능의 展開實績에서 大學教育政策研究, 大學財政構造研究, 國內세미나, 國際세미나 그리고 協議會 支援 등 類型別로 정책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매우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육협의회의 政策研究 機能에 대한 評價와 提言에서 그 평가 대상을 ① 정책 연구 기능의 展開形態, ② 정책 연구 Agenda 설정 과정의 適合性, ③ 정책 연구 遂行方法의 適合性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정책 연구 기능의 展開形態에서 지금까지의 협의회의 정책 연구 기능이 自然發生的으로 均衡 있게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연구 Agenda의 설정 과정에서 현재 협의회가 처해 있는 與件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政策研究課題가 文教部의 要請이나 때로는 협의회의 편의적 思考에 의하여 결정될 때, 대학교육의 核心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협의회 중심의 自主性, 自律性, 專門性, 長期的 計劃性, 公共性을 志向하는 體制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연구 遂行方法에 있어서 문교부는 政策研究費의 配定에 대학교육 협의회의 長期的, 自律的 研究를 지원하는 의미

에서 보조금 형식만이 아닌 출연금 형식의 研究費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협의회는 이를 전담할 大學教育問題研究所를 빠른 시일내에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4) 大學教育 情報센터의 機能

제 4 분과 주제를 발표한 全成連 교수(高麗大)는 대학의 財政的인 면과 專門人力 確保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 대학이 모두 情報體制를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不可能한 상황이므로 대학교육협의회의 教育資料情報室은 각 대학의 高等教育에 대한 정보·자료의 요구를 充足시켜 주어야 하는 막중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大學教育情報센터의 機能이 아직 완전히 定着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모든 기능이 正常化되리라는 견제하에서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資料의 수집, 자료의 刊行 및 配布, 「大學教育」誌의 발간, 寄贈圖書 배포 사업 그리고 大學教授 招聘情報室 운영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정보 자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強化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몇 가지 과제로 ① 협의회의 機關內의인 合議와 노력은 물론 대학에서의 支援와 協助가 絕對的으로 필요하며, ② 국내의 각 대학, 연구 및 학술기관 등은 물론, 해외의 教育專門情報센터와 情報交換網을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

개척, 확대해 나가야 하고, ③ 教育情報資料室은 자료를 수집하는 일 이외에도 대학교육에 관련된 기사색인 등과 같은 2차 자료를 創出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④ 外國語版 弘報자료의 開發이 필요하고, ⑤ 高等教育 정보 자료실의 組織의 強化가 필요하며, ⑥ 협의회 주관하에 研究 發刊된 政策研究報告書와 評價報告書는 대학사회에 널리 公開할 필요가 있으며, ⑦ 앞으로 기증 도서 配布事業은 협의회가 좀더 擴大 調整하여야 할 것을 提示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情報자료의 수요도 늘어감에 따라 정보 자료실의 기능이 보다 전문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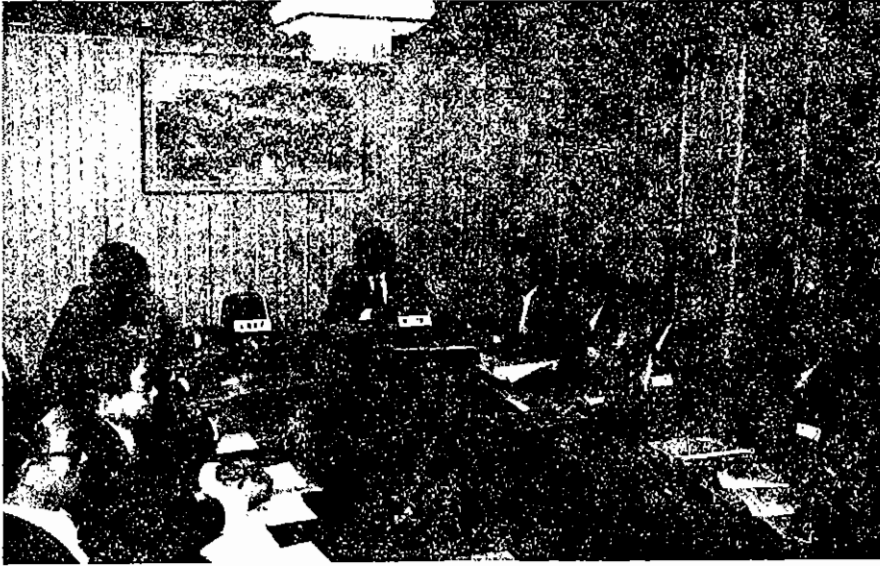
#### (5) 大學 敎職員 研修 機能

제 5 분과 주제를 발표한 金信福 교수(서울大)는 협의회가 주관하였던 行政管理職 研修와 新任 敎授 研修 프로그램을 ① 研修需要와 被訓練者, ② 研修內容과 方法, ③ 講師 및 支援體制, ④ 評價와 環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연수 수요와 피교육자의 측면에서 볼 때 行政管理職 研修의 경우, 量的 측면에서 研修需要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對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質的인 측면에서도 연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教育目標과 研究課程 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未洽하다는 점, 그리고 피훈련자의 수용 태세와 동기 유발을 강화하기 위한 배



이번 세미나는 5차년도뿐 맞는 협의회가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그 뜻이 있었다 ▶



◀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5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 토론회 속에서 이루어졌다

려가 더욱 요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新任教授 研修에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신입 교수를 위한 연수가 就任前에 이루어지는 職前教育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專門的인 교육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연수에 대한 肯定的인 수용 태세를 갖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教育內容과 方法에 있어서 行政管理職 研修의 경우는 教科目 編成 및 教育內容 면에서 專門化의 정도가 未洽하며, 연수 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연수 수요의 體系的 分析作業이 先行되어야 하고, 교수 방법에서 具體的인 主題를 중심으로 實習形態의 작업이나 모범적인 行政管理의 事例 등을 발표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新任教授 研修에는 教授·學習理論, 教育方法論, 生活指導와 같은 교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강의 방법 이외에 小集團討論을 통한 問題解決 위주의 워크숍 같은 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講師 및 支援體制의 측면에서는 行政管理職 研修와 新任教授 研修 모두가 현재의 강사로나 研修 프로그램을 위한 財政的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評價와 環流의 측면에서 볼 때 행정 관리직 연수의 경우, 研修效果뿐만 아니라 研修課程의 운영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하

는 體制全般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연수 이후 강사들과의 座談會나 外部專門家들에 대한 總括評價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입 교수 연수의 경우는 현재의 設問紙 조사 이외에 履修生들과의 深層的인 面談과 原因分析을 통한 자체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3. 分科別 討議結果의 綜合

5개 分科에서 발표하였던 각 주제에 대하여 總·學長과 총·학장을 代表한 補職교수들이 討議한 결과를 지면 관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間 協議調整 機能의 活性化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存立 價値 및 理由를 再究明하고 대학의 自律性을 신장하고자 하는 政策意志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간의 협의 조정 기능의 效率性을 위해서도 政策議題의 選定過程에서 모든 회원 대학들이 해결하여야 한 가장 緊要한 과제부터 그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그 議題가 모든 대학의 共同的인 關心課題가 되어야 한다.

셋째, 大學政策에 대한 협의 조정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一律的이고 劃一的인 接近方法에서

탈피하여 大學間의 特性과 條件을 고려한 機能 遂行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대학의 財政的 構造나 學生定員 등의 문제에 대하여 國立과 私立 大가 判異하게 다를 수가 있다.

네째, 현재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大學間 協力は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대학내와 대학간의 閉鎖性 등으로 인하여 이는 漸進的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대학 평가는 文敎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및 학과의 設置認可制度와 大學敎育協議會에서 실시하는 機關評價 및 領域別 評價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학교육의 質的 改革을 촉진하고 사회에 대한 대학교육의 質的 信賴를 위해서는 문교부의 設置 인가 제도와 협의회의 대학 평가가 制度的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앞으로 대학 평가에 참여할 評價委員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評價的 資質과 경험 있는 위원을 각 해당 專攻分野의 學會나 일반 사회 團體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効率的인 대학 평가를 위하여 실제 대학 평가에 앞서 事前研修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大學評價는 3년 내지 5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週期的으로 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일 수가 있다. 그 대신 自體 報告書 작성에 있어서 대학에게 충분한 時間的 餘裕를 줌으로써 보다 質的인 評價를 기할 수가 있으며 또한 現地訪問評價의 기간도 현재보다 延長하여 多角的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앞으로 협의회의 政策的 研究는 모든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緊要한 課題, 즉 대학의 自律性에 관한 문제, 學生問題, 私學財團의 公共性 문제 등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本質的인 問題를 보다 深層的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아홉째, 政策研究의 경우 研究隊의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地域的 分配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접근 방법도 多學問的 接近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열째, 지금까지는 주로 調查研究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研究結果의 보급적 차원에

서 세미나와 같은 것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열한째, 현재 발간되고 있는 「大學敎育」誌의 內容이 대학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肯定的 評價에 비하여 이 「大學敎育」誌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大學敎育」誌의 効率的인 配布를 위해서 그 發行部數를 늘리든가 아니면 有價誌로 하여 보급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열두째, 아시아財團 기증 도서에 대하여 협의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支拂하고 있으므로 도서의 선택권이 우리 大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의회는 海外 學術情報의 신속한 入手에 보다 더 큰 노력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열세째, 협의회의 大學敎育情報센터의 기능이 보다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 國內 大學間의 敎育情報 交流, ② 國外 大學으로부터의 敎育 정보 入手, ③ 國際 學術情報의 수집과 정리, 배포 등의 기능이 強化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컨대 大學間의 각종 情報를 교환하는 데 편의를 주는 制度的 情報交流 장치인 Newsletter라든가 Library News 같은 것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열네째, 현재의 敎職員 研修의 범위에 事務職 研修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하며, 실사 계속될 경우 그 명칭을 行政管理職보다는 事務管理職 研修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行政管理職인 總長, 副總長, 學·處長 및 敎學關係 課長의 연수와 現職 教授도 分野와 經歷에 따른 多樣한 研修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열다섯째, 대학에서의 敎職員の 現職研修의 必要性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의 研修 프로그램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 및 사명 완수에 맞게끔 치밀한 事前計劃과 계속적인 연계 체제를 갖추어 長期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연수 敎育 내용도 行政管理 責任者의 研修는 다 양한 人間關係 改善의 실무 및 長期的 眼目的 企劃理論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수 연수의 내용에도 敎授資質的 측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열여섯째, 新任敎授나 事務職 研修는 필요를 느끼게 하고 現場을 改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事務職 研修의 경우, 核心要員을 선발하여 대학 발전에 극히 필요한 분야에 重點的으로 숙달하도록 한 후, 이들로 하여금 전달 강습을 자체적으로 보급해가도록 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新任教授 연수의 경우에도 專攻分野別로 연수 프로그램을 編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4. 세미나에 參加하고 나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발표자나 참가자들이 다 같이 느꼈던 점은 이제 5년을 맞이하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 활동 영역에서 插目할 만한 業績을 쌓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발전 可能性을 기대하면서 모든 參加者들은 그들의 要求와 더불어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評價가 여러 시각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느꼈다.

여러 學術세미나에 참가했던 筆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特定 專攻分野의 學術發表가 있고 나면,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과 토의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느꼈던 점은 분명히 평가받는 측과 이를 평가하는 측이 事前에 결정되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미나 진행 속에서는 평가받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학술 세미나의 主題가 여기에 나온 평가받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였으므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며, 평가하는 사람이 곧 우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학술 세미나의 主題들은 우리들의 共感帶를 형성해 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학술 세미나가 活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大學人들의 모든 삶의 意味가 그 主題에 대한 對話 속에 있었으며, 또한 우리 大學人들이 追求하고자 하는 理想的인 像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참가하였던 우리 大學人들 모두는 세미나 동안만은 기쁨의 歡喜로 충만되어 있었고, 또한 大學의 自律性이나 學問의 자율성, 大學 운영의 自律化와 效率化 그리고 大學財政의 자율적인 운영 등과 같은 진수성찬인 이번 학술적 향연에 배고픔을 모르고 열띤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틀간의 세미나가 끝난 직후 筆者는 세미나장을 나와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 다시 배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진수성찬인 이번 학술 세미나의 참가기를 쓰기 위해 大學으로 달려 갔다. \*